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60, No.10 (December 2010) pp.118-132

Alexander McQueen 컬렉션에 표현된 메이크업의 도상학적 해석

김 현 미* · 김 숙 현** · 장 애 란+
제주대학교 시간강사* · 존슨 앤드 웨일즈대학교 조교수** · 제주대학교 교수+

Iconological Interpretation of Makeup depicted in Alexander McQueen's Collection

Hyun-Mi Kim* · Sook-Hyun Kim** · Ae-Ran Jang+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Jeju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Fashion Merchandising & Marketing College of Business, Johnson & Wale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Jeju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0. 9. 1, 심사(수정)일: 2010. 10. 5, 게재확정일: 2010. 11. 11)

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velop a systematic model to interpret makeup signs through a case analysis of makeup shown in Alexander McQueen's ready-to-wear collections from 2001 to 2010 and to prove an importance of makeup as a communication medium to deliver social and cultural values.

This research employed Panofsky's Iconology theory to analyze data. This theory consists of three steps to interpret the meaning of a work: (1) pre-iconographical description, (2) iconographical analysis, and (3) iconological interpretation. Alexander McQueen's makeup was analyzed with the three steps in order. As a result of the pre-iconographical description step, makeup styles (icons) in his collections are identified which are Egyptian style, Gothic style, Androgynous style, Victorian style, Fantasia style, and Futuristic variant style. The iconographical analysis step identified that the elements used in his makeup are inspired by his identity and life. In the final step of iconological interpretation, the researcher concluded that Alexander McQueen's makeup expresses social, cultural, and aesthetical value of the time period when the collection was created. His makeup shows postmodernism that accepts a diversity of views (the pluralism) and humanism, romantic narcissism that is his personality trait, and avant-garde that pursues a new, creative aesthetics.

Key words: Alexander McQueen(알렉산더 맥퀸), iconological interpretation(도상학적 해석), makeup(메이크업), Panofsky's theory(파노프스키 이론)

이 논문은 2008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Ae-Ran Jang, e-mail: jemmaran@cheju.ac.kr

Ⅰ. 서론

오늘날까지 인간은 기호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한다. 여기에서 기호는 인간이 인지하는 모든 것을 환원시킨 것이므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의 감정이나 사고, 행동까지도 모두 기호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의복과 메이크업의 소재나 색상, 디자인도 기호이며, 입고 있는 장소나 상황도 기호가 된다. 그러므로 의복을 착용하거나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기호라고 할 수 있다.

롤랑 바르트(R. Barthes)에 의하면 패션은 '무언(無言)의 형태를 가진 의사소통의 수단(silent form of communication)[1]이라 하였고, 〈The Language of Fashion〉[2], 〈Mythologies〉[3]에서는 패션 기호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서 패션이 하나의 기호임을 입증하였다.

패션이 하나의 기호이듯이 메이크업 역시 신체의 형태, 재질, 색, 냄새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변형시키는 재구성형(re-constructing)의 복식[4]으로 개인의 미적 표현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의미를 담은 시각언어이다.

그러므로 기호학 관점에서 메이크업은 디자이너가 관객에게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기호이다. 다시 말해서, 디자이너(발신자)와 관객(수신자)은 메이크업에 담겨진 메시지를 발신과정과 수신 과정에서 메시지를 해석·평가함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5].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컬렉션의 메이크업은 더욱 더 다양한 형태와 테크닉으로 표현되어 실험적이고 아트적인 성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1969-2010)은 독창적인 디자인은 물론, 구조적이고 정확한 재단기술과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세계 패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악동, 천재, 쓰레기, 혁명가, 앙팡 테러블 등 수많은 닉네임에서 알 수 있듯이 극과 극의 수식어들로 평가 받았던 디자이너인 만큼 그의 컬렉션에 표현된 메이크업 역시 아방가르드하고 변종적인 메이크업으로 구성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에는 패션디자인 못지않게 실험성이 강한 메이크업 특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체계적인 의미 해석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된 메이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 ·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호적 해석을 선택하였다.

기호를 해석함에 있어 디자이너의 예술 의도나 문화적인 관습이 제외된 의미적 해석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가 될 수 있다는 제한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E. Panofsky의 도상해석학(Iconology) 이론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조형예술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관점의 해석틀(schema)로서, 명확한 해석도구와 수정 원리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에 표현된 메이크업 기호를 기술·분석·해석하기 위해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 이론을 차용함으로서 메이크업 기호의 객관적 해석 방법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도상기호의 개념 및 파노프스키의 이론을 고찰하고, 2차적으로 알렉산더 맥퀸의 시즌별 컬렉션에 표현된 메이크업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그중에서 실험성이 강하게 표현된 메이크업 유형을 선별하여 실증적으로 기호적 측면에서 기술·분석·해석한다. 이 목적을 수행함으로서 메이크업이 사회적·문화적 현상을 나타내는 예술기호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메이크업의 중요성을 재 규명하고자 한다.

자료수집범위는 알렉산더 맥퀸 본인의 이름으로 개최되었던 2001년 S/S부터 2010년 S/S까지의 Ready-To-Wear Collection에 발표된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으로 적합한 도상들을 선별하여 해석하였다.

Ⅱ. 도상기호와 E. Panofsky의 도상해석학 고찰

1. 도상기호

기호(sign)란 '어떤 대상이나 생각을 대신하는 어떤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기호의 유형은 도상기호

(icon), 지표기호(index), 상징기호(symbol)으로 구분한다. 퍼스(C. S. Peirce)에 의하면 기호는 표상체(Representamen), 대상체(Object), 해석체(Intrpretant)의 세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 세 요소들은 각각의 존재양상에 따라 〈표 1〉[6]과 같은 기호 유형이 만들어진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상체(기호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의 존재 양상이 일차성이면 도상, 이차성이면 지표, 삼차성이면 상징 기호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도상은 다른 어떤 것에도 관련되지 않고 존재하며 대상체와 유사한 기호이며, 지표는 대상체와 실존적 연결을 이루고 있는 기호로서, 지표와 대상체 사이에는 인과적인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상징은 임의로 만들어진 기호로서 기호와 대상체 사이에 어떤 연관이나 유사성 없이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기호이다[7].

이 중 도상기호는 지시하는 것과 비슷한 기호로서, 종종 그것이 표시하는 물체와 동일시되므로, 도상기호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호라고 할 수 있다[8]. 그러므로 예술에서는 어떤 다른 기호보다 도상기호를 주로 사용하며, 구체적인 이유는 모리스(C. W. Morris)가 미학기호의 기준을 두 가지로 정의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은 도상기호가 다른 종류의 기호보다 다양한 의미작용을 제공하므로 미학기호는 퍼스가 말하는 도상기호여야 한다. 두 번째 기준은 지시대상이 미학적 가치가 있다면, 그 자체가 기호라는 것이다[9]. 그의 견해에 의하면, 무엇이든 미의 인식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술작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메이크업에는 미학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도상기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E. Panofsky의 도상해석학

도상학(Iconography)과 도상해석학(Iconology)은 예술작품의 주제 혹은 의미내용을 형식과 대별하여 다루는 미술사의 한 분야[10]로서, 도상학은 주제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도상해석학은 예술작품 속에 구현된 이념을 그의 내용이나 기원, 전개과정 차원에서 분석하여 그림이 함축하고 있는 기호학적 의미를 파악한다[11]. 그러므로 도상해석학은 조형미술 작품을 역사적 시각에서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 입각하여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작품의 내용이 어떤 의미로 비쳤을 것인지 또는 어떤 의미에서 작품이 표현되었는지를 밝혀내는 학문이다[12].

A. Warburg는 도상해석학을 문화학의 한 연구 분야로서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화사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류학, 종교학, 사회제도의 역사, 민족성, 경제사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기술의 역사 등에서 연구의 관심사가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으로 엮어서 작품연구에 적용시켰다[13]. 이러한 학문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학자가 E. 파노프스키이며, 그의 이론은 현대 예술 작품에 대한 연구방법으로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파노프스키는 조형예술의 기술과 내용해석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지만, 이 세 단계는 독립된 의미영역이 아닌 하나의 유기적 과정으로 세 단계의 해석단계를 거쳐야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첫 단계는 '전 도상학적 기술(Pre-iconographical description)' 단계로 '일차적인 또는 자연스러운 주제(Primary or Natural Subject Matter)'를 기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다시 사실의미와 표현의미로 구분된다. 사실의미는 사물의 형태나 윤곽선을 보고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확인하는 것이다. 즉, 메이크업의 형태는 어떤지, 컬러는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감정이입을 통해 형태가 재현해내는 분위기를 인지해 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즉, 메이크

〈표 1〉 퍼스의 기호유형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
표상체	품질기호(Qualisign)	개별기호(Sinsign)	법칙기호(Legisign)
대상체	도상기호(Icon)	지표기호(Index)	상징기호(Symbol)
해석체	논항기호(Argument)	발화기호(Dicent)	해석기호(Rheme)

〈표 2〉 E. Panofsky의 도상해석학 단계에 따른 메이크업 해석대상

해석 행위	해석 도구	해석의 수정 원리	해석의 대상
Ⅰ. 전 도상학적 기술	실제 경험	양식사	· 메이크업의 형태, 컬러, 구조, 소재 등을 구 체적으로 기술 · 일차적으로 감지되는 분위기 파악
Ⅱ. 도상학적 분석	문헌 지식	유형사	· 지식을 바탕으로 메이크업의 유형 분류 · 디자이너의 메이크업 유형사를 통해 기법 의 사용 의미 분석
Ⅲ. 도상학적 해석	종합 직관	문화적 징후 또는 일반적인 '상징'의 역사	· 메이크업의 상징가치 해석

업의 형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양식사(history of style)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도상학적 분석(iconographical analysis)'단계로 '이차적 또는 관습적 주제(Secondary or Conventional Subject Matter)'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파악된 예술적 모티브 즉, 이미지를 테마나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변화하는 역사적 조건에서 특정한 주제나 관념이 어떻게 대상과 사건을 통해 표현되는 가에 대한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이 단계는 문헌지식을 바탕으로 형식과 대별되는 의미에서의 주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문헌에 관한 지식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형사(history of types)를 동원할 수 있다. 여기서 유형이란 용어는 특정한 사실의미가 특정한 주제의미와 어울려서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양식기법은 역사적 상황을 투시되면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사회·문화적 배경을 비교·고찰한다면 표현기법의 보편성과 특이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이 사항을 파노프스키는 '유사형성'이라고 하였다. 이 유사형성이란 전통적인 조형 모티브가 새로운 맥락 안에서 원래의 의미가 전환되거나 부활되어 재사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모티브를 사용할 때, 원래의 문헌기록에 꼭 부합해야 할 필요는 없다[14].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분석된 메이크업 형태를 토대로 메이크업의 유형을 분류하고 테마나 개념을 연결시킨다.

세 번째 단계는 '도상학적 해석(Iconological interpretation)' 단계로 '본래의미 또는 의미내용(Intrinsic Meaning or Content)'을 해석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의 의미를 드러내고 해석하려면, 작품탄생의 '근거가 되는 원칙들'을 다루어야 한다. 이 원칙들은 한 작가가 예술작품에 녹아있는 어떤 특정한 국가나 시대, 계급, 그리고 종교 및 철학적 신조 등을 종합적 직관(synthetic intuition)을 통해 상징형식(symbolische form)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다. 이는 도상을 어떤 다른 것의 징후로서 다루는 것으로 작품의 구성적, 도상학적 특성들을 '그 어떤 다른 것'의 좀 더 구체적인 증거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문화적 징후(cultural symptoms) 또는 일반적인 상징이 역사를 통해 검증·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징가치(symbolical values)를 찾아내고 해석하는 것이 도상해석학의 연구 목표이다[15]. 이 단계는 이데올로기의 이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가장 빈번한 인간행위인 커뮤니케이션의 양상과 범위를 설정해 줄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종류와 이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모든 하위의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메이크업 기호가 지니는 상징가치를 해석하기 위한 단계로 메이크업 기호를 통해 디자이너의 의도나 철학적 신조를 읽어냄으로서 메이크업 도상기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Ⅲ. Alexander McQueen의 메이크업 도상기호 해석

기호란 기표와 기의의 결합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것으로[16], 해석자가 실제로 보는 것은 메이크업의 표현형태만을 의식할 뿐이지만, 차후에 해석을 통해 의미가 규명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기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맥퀸의 메이크업 도상기호의 실증적 해석

〈표 3〉 Alexander Mcqueen의 시즌별 메이크업 도상기호

2001 S/S		도상 1		도상 2	2001 F/W		도상 3		도상 4	2002 S/S		도상 5		도상 6
2002 F/W		도상 7	2003 S/S		도상 8		도상 9	2003 F/W		도상 10	2004 S/S		도상 11		도상 12
2004 F/W		도상 13	2005 S/S		도상 14		도상 15	2005 F/W		도상 16		도상 17	2006 S/S		도상 18
2006 F/W		도상 19	2007 S/S		도상 20	2007 F/W		도상 21	2008 S/S		도상22		도상 23		
2008 F/W		도상 24		도상 25	2009 S/S		도상 26	2009 F/W		도상 27	2010 S/S		도상 28		도상 29

에 앞서, 맥퀸 컬렉션(2001 S/S~2010 S/S)에 표현된 메이크업 도상기호를 추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17]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메이크업 도상기호는 선행연구 및 문헌에서 분류된 형식기준을 토대로 7가지의 도상학적 유형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요약해 보면, 블랙컬러의 아이라인과 블루컬러의 새도우가 특징인 이집트식 메이크업 유형(도상 21), 블랙새도우가 특징인 고딕식 메이크업 유형(도상 3, 4, 5, 6, 8, 9, 25), 남성적인 굵은 눈썹이나 입술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 앤드로지너스식 메이크업 유형(도상 1, 2, 12, 14, 18), 눈썹화장을 하지않고 골드 펄로 하이라이트를 하는 것이 특징인 빅토리아 시대풍 메이크업 유형(도상 10, 15, 19, 20, 22, 24), 초현실적이고 아트적 성향이 강하게 표현되는 판타지식 메이크업 유형(도상 7, 23, 27), 인간의 얼굴을 변형하는 것이 특징인 미래 변종식 메이크업 유형(도상 13, 26, 28, 29), 패션트랜드를 리드하는 특정 스타의 메이크업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 뷰티아이콘 메이크업 유형(도상 11, 16, 17)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 중 뷰티아이콘 메이크업유형은 유행을 리드하는 특정 스타의 메이크업을 대변한 것이라 사료되어 실증적 해석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 유형별로 분류된 것 중에서 대표적인 도상기호를 파노프스키의 이론을 차용하여 실증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1. 이집트식 메이크업의 도상기호 해석

1) 전 도상학적 기술 단계

〈도상 21〉은 굵게 직선으로 그린 일자형의 눈썹과 굵은 아이라인이 특징이다. 두껍게 그린 아이라인은 눈 꼬리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삼각형이 형성되어 매서운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아이새도우는 터키컬러를 사용하여 눈두덩 전체에 음영감 없이 모노톤으로 표현되었다. 치크 메이크업은 거의 컬러를 알아볼 수 없으며, 입술 역시 톤 다운된 핑크를 옅게 발라 전체적으로 눈이 강조된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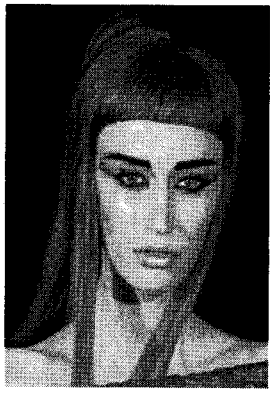
2) 도상학적 분석단계

〈도상 21〉은 고대 이집트인의 메이크업 유형과 유사함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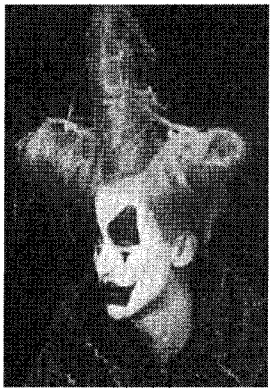
고대 이집트는 최초로 섬세하게 눈과 눈썹을 강조한 메이크업으로[18],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메이크업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안티몬(antimony) 가루를 사용하여 눈썹을 검게 하였고, 날개모양의 눈꺼풀을 만들기 위해 방연광으로 만든 콜(Kohl)로 블랙 아이라인을 그렸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본래 눈썹을 밀거나 뽑아버린 후 눈썹을 그렸으며, 위 눈꺼풀은 블루 컬러로, 아래 눈꺼풀은 라이트 그린 컬러로 칠함으로써 미적인 표현은 물론, 매서운 사하라 사막의 눈부신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하였다. 이집트의 메이크업은 1920년대 파리에서 공연한 러시아 발레단의 발레리나나, 1960년대 영화 〈클레오파트라(Cleopatra)〉에서 재현되면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에스닉한 분위기 연출에도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상 21〉과 같이 2007 F/W 컬렉션에 표현된 이집트식 메이크업은 에스닉한 의미보다는 종교와 영국 그리고 이집트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맥퀸은 자신의 선조가 1692년 세일럼(Salem)의 마녀재판[19]에서 숨진 희생자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것을 계기로 종교를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대 이집트와 신대륙으로 이주한 초기 영국인들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20]. 그 사실을 바탕으로 2007 F/W 컬렉션에서는 해골로 부패해가는 얼굴과 피와 불이 나오는 무시무시한 영상을 배경으로 마치 마녀재판의 현장을 재현하는 분위기로 연출하였으며, 모델들은 검정 레더 레깅스 의상과 네페르티티(Nefertiti) 여왕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석관의 청금석과 금을 표현한 의상들을 착용하였다.

따라서 〈도상 21〉을 도상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신의 놀라운 가족사를 바탕으로 한 자아의 표현이며, 종교박해에 대한 분노를 완충적으로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마녀, 이교도 정신, 종교박해에 대한 의미가 내포된 메이크업임을 알 수 있다.



〈도상 21〉 Mcqueen,
R-T-W, Paris, 2007 F/W



〈도상 4〉 Mcqueen,
R-T-W, Paris, 2001 F/W

3) 도상학적 해석단계

비비엔 웨스트우드(V. Westwoood)가 '과거를 잊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돌아 볼 수 있어야 한다.'[21]고 말한 것처럼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한 컬렉션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비판하고 비도덕적 행위를 반성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현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맥퀸 역시 컬렉션의 주제를 마녀재판으로 설정한 것은 합리주의와 휴머니즘을 표방한 르네상스 최절정기의 권력자나 지식인들의 저지른 만행과 도덕적 공황상태를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도상 21〉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박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재해석은 휴머니즘 정신에 기인한 것으로, 메이크업을 통해 현대 사회의 부조리나 불합리를 고발하고 약자의 입장에서 제 목소리를 내려는 예술가의 진정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미 맥퀸은 1990년대 초반 Highland Rape 컬렉션에서 스코틀랜드인에 대한 영국의 잔인성을 고발하려는 정신을 표출하여 '우아한 무정부주의자', '정치적으로 삐딱한(Politically Incorrect)' 디자이너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그의 휴머니즘적 태도는 모델 캐스팅에서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키가 크고 날씬하며 아름다운 모델만을 선호하는 디자이너들과는 달리 임신한 스킨헤드[22]의 모델이나 장애인이 된 스포츠 챔피언 물린(A. Mullins), 난쟁이 모델 등을 캐스팅하는 대범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시도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주었고,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인간애적인 사회에 대한 갈망을 의도적으로 표출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상 21〉을 도상학적으로 해석한 결과, 눈을 강조한 이집트식 메이크업의 유형을 통해 잘못된 과거 마녀재판의 비도덕적 행위를 비판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예술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나 불합리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려는 예술가의 진정성이 표현된 메이크업 기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고딕식 메이크업의 도상기호 해석

1) 전 도상학적 기술 단계

〈도상 4〉는 피부를 화이트 컬러로 매우 매트(mat)하고 두껍게 발랐으며, 괴기스러운 피에로를 연상시키는 눈과 입술이 과장된 형태로 표현된 메이크업이다. 눈은 크림질감의 블랙 컬러를 사용하여 아이새도우와 아이브로우의 영역을 확장시킨 형태로 구성되었다. 보통 피에로의 립 메이크업은 레드컬러와 둥근 아웃라인의 형태로 우스꽝스럽고 즐거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도상 4〉는 블랙 컬러로 날카롭게 그림으로서 마치 굵은 눈물을 흘리는 슬프고, 무서운 피에로 이미지를 표현한 메이크업이다.

2) 도상학적 분석단계

〈도상 4〉는 파우더를 잔뜩 바른 하얀 피부에 블랙 새도우, 블랙 립스틱을 사용하여 극적인 대비를 조화시킨 고딕식 메이크업의 유형과 유사함을 유추하였다.

고스(Goth)의 근대적인 근원은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에서 유행했던 괴기, 공포 소설인 빅토리안 고딕 소설 장르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음산함과 죽음, 공포, 어두움의 미학으로 대변된다. 현대적 의미의 고스는 펑크에서 파생된 것으로 블랙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펑크는 사회에 대한 반항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풍족한 환경의 고스는 사회 도피적인 성향을 띠며 패션이나 음악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분야에 집중하여, 비정치적이며 비사회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23].

고딕식 메이크업은 고스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메이크업이며, 1920년대의 영화배우 테다 바라(Theda Bara)의 뱀프(Vamp)메이크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당시 뱀프 메이크업은 전쟁이후 해방감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육체 표현의 한 방식으로[24]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벗어나 자신만의 새롭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맥퀸은 세기말적 트렌드로 부각된 긱 시크(Geek Chic)[25] 디자인을 발표하면서, 고딕적인 분위기의 메이크업을 그만의 감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다크 레드 컬러로 입술의 윤곽선만을 두껍게 그리거나(도상 3), 눈 밑에 블랙컬러로 검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며(도상 9), 눈 주위를 블랙컬러로 연잎모양으로 그리고 콧등에는 금속소재를 붙이는 등(도상 8) 새로운 감각의 메이크업을 시도하였다.

이상과 같은 표현을 보면, 맥퀸은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적 금기나 관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였다. 그 이유는 새로움의 정도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인간은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보다는 오히려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느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상 4〉를 분석한 결과, 시각적 충격효과를 이용하여 현대사회의 인간성 상실과 새로운 21세기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표현하였다. 특히, 기존 메이크업의 규칙을 탈피한 극적인 대비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을 형성하였다는 점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3) 도상학적 해석단계

1910년대의 서구의 몰락과 백인 남성의 몰락은 전통사회의 비주류인 노동자 계층이나, 여자, 다색인종의 영향력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26]. 이런 사회적 현상은 예술의 고정관념을 부정하는 아방가르드의 개념을 등장시켰으며, 이는 전통적인 미 개념에 대한 비판이라는 예술철학을 유행시켰고, 패션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에서도 창의적인 조형미를 전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스 스타일을 비롯하여 스킨헤드(Skin Head), 글램(Glam), 펑크의 스트리트 패션의 유행은 주류문화의 중심이었던 서구의 역사 속에서 비주류문화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특히, 영국이 1960년대 청소년문화의 근원지가 된 배경은 바로 영국의 자유로운 사고와 더불어 영국의 차별적인 계층의 역사[27]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28].

그러므로 〈도상 4〉와 같이 고딕식 메이크업을 비롯한 퇴폐적인 메이크업이 고급문화임을 대변하는 컬렉션에서 표현된 것은 탈중심적 세계관에 의해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이나 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파괴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맥퀸이 '공포는 아름다움 속에 포함 되고요. 슬픔은 기쁨과 공존하죠.'라고 말 한 것처럼 그의 작업에는 죽음에 대한 표현이 많이 언급되었다[29]. 이러한 악, 광기, 공포, 죽음 등의 테마는 니힐리즘에 기인한 것으로, 인간의 생의 범주 내에 표현되는 모든 감성적인 표현들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이자 현대사회의 규범에 대한 반항과 개혁의 실천을 위함[30]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도상 4〉를 도상학적으로 해석한 결과, 하얀 피부와 블랙컬러의 새도우와 립스틱을 사용하여 인간내면의 공포와 죽음의 이미지를 표면화시킨 것으로 탈중심적 세계관에 의한 비주류문화의 수용적 태도와 니힐리즘이 표현된 메이크업 기호라고 해석

할 수 있다.

3. 앤드로지너스식 메이크업의 도상기호 해석

1) 전 도상학적 기술 단계

〈도상 1〉은 투명하고 실키(silky)한 피부톤, 핑크 블러셔, 눈썹은 화이트컬러로 아이브로우 브릿징한 것처럼 여성스런 이미지가 표현된 반면, 눈두덩에 다크브라운 컬러의 아이새도우로 상승형의 눈썹 효과를 내어 마치 남성적인 눈썹으로 내용이 반전되는 등 여성적인 이미지와 남성적인 이미지를 혼재시킨 메이크업이다. 또한, 화이트컬러의 아이라인과 언더라인, 립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것에서 냉정함 신비감이 느껴진다.

2) 도상학적 분석단계

〈도상 1〉은 남성적인 이미지의 굵은 눈썹과 립리스 메이크업의 형태, 그리고 투명한고 실키한 피부톤의 여성적인 이미지가 표현된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식 메이크업의 유형과 유사함을 유추하였다.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는 1984년 심리학자 벤(Ben)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앤드로스(Andros)는 남자를, 지나케아(Gynacea)는 여자를 뜻하는 것으로,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는 것을 말한다[31]. 다시 말해서 앤드로지너스식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이 여성의 전유물이 아닌 인간 본성인 아름다워지려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스럽게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혹은 여성들이 남성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수염이나 굵은 눈썹, 혹은 립스틱을 바르지 않는 방식 등으로 메이크업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한편, 현대 사회의 문제인 동성애로 인해 기존의 성 정체성이 파괴되고 성별 이미지가 모호해져 개인주의적 다양화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앤드로지너스식 메이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맥퀸은 자신이 6세에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노농계급이었던 가족을 위해 18세에 커밍아웃을 하였다[32]. 이러한 성적 특성은 컬렉션 기획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예로 〈도상 1〉과 같이 성 정체성이 다양하게 표현된 메이크업 기호들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앤드로지너스식 메이크업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나 이성, 공격성, 용기, 힘 등의 남성적인 특성과 유연성, 인내, 순종의 여성적인 특성이 균형과 조화를 통해 성적 특성을 교차시키는 행위의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3) 도상학적 해석단계

역사적으로, 복식은 중세 이후 성을 인식하는 도구로서 남녀의 성적인 차이를 강조한 복식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19세기말 여성운동과 전쟁 후의 여성의 사회진출은 고정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으며, 생물학적 성(sex)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성(gender)의 차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원론적 성 정체성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다각도로 변화된 성 이미지의 혼합은 성의 양면가치를 제시하면서 상식을 초월한 개성 위주의 패션문화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도상 1〉과 같이 앤드로지너스식 메이크업은 여성성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을 혼재하여 표현하는 수단으로 변화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양성이 공존하는 이상형을 지향하기 위한 메이크업 기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도상 1〉을 도상학적으로 해석한 결과, 투명하고 실키한 피부톤의 여성적인 이미지와 굵은 상승형의 아이브로우와 립리스 형태인 남성적인 이미지가 동시에 표현된 앤드로지너스식 메이크업의 유형이다. 이는 성 정체성이 초월된 다양한 성의 공존을 의미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을 수용한 페미니즘이 표현된 메이크업 기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빅토리아 시대풍 메이크업의 도상기호 해석

1) 전 도상학적 기술 단계

〈도상 15〉는 창백해 보이는 피부톤과 아이브로우 브릿징(eyebrow bleaching)[33]한 것처럼 골드컬러의 아이브로우를 사용하였다. T존에는 아이브로우 컬러와 매치시킨 골드 펄로 하이라이트를 주고, 핑크 블

〈도상 1〉 Mcqueen, R-T-W, Paris, 2001 S/S

〈도상 15〉 Mcqueen, R-T-W, Paris, 2005 S/S

러셔(blush)를 볼 중앙에 둥글게 펴 발라 순종적이고 연약한 여성 이미지를 표현한 메이크업이다.

2) 도상학적 분석단계

〈도상 15〉는 2005년 S/S 컬렉션의 메이크업으로 과거 빅토리아 시대의 메이크업 유형과 유사함을 유추하였다. 2005년 S/S 컬렉션은 1975년에 제작된 영화 〈Picnic at Hanging Rock〉[34]을 모티브로 에드워드풍의 테마를 선보였다[35].

빅토리아 시대의 메이크업의 특징은 빅토리아 여왕의 조용하고 깔끔한 성격이 반영되어 거의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얼굴이 유행하였다. 창백한 얼굴에 눈썹은 손질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며 눈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코에 펄 가루를 바르고, 연한 입술과 볼 화장을 하였다. 그 당시 눈썹에 대한 미의 기준은 얼굴에 평온함을 주는 아치형의 눈썹으로 여성스럽고, 수줍어 보이는 듯한 이미지이며, 다양한 컬러를 이용한 눈썹염색법이 유행하였다[36]. 이런 현상은 그 당시 여성들에게 내성적이고 정숙함을 강요한 결과이며, 남성 의존적인 시대상이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맥퀸은 2008년 F/W 컬렉션을 위해 인도를 여행한 후, 빅토리아 여왕과 웰링턴 공작(The Duke of Wellington), 그리고 식민지였던 인도제국의 이미지를 테마로 하였다.[37] 그 예로, 〈도상 24〉는 빅토리아 시대풍의 메이크업과 수천만 달러의 앤티크한 인도의 왕관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장식된 메이크업으로 인도를 점령한 대영제국의 권력과 위대함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따라서 맥퀸이 컬렉션에서 표현한 빅토리아 시대풍의 메이크업은 빅토리아 여왕의 부드러우면서 강인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반영한 것이며, 꾸뛰르적인 의상과 새빌로우식 테일러링(Savile Row tailoring)과 조화를 이루어 귀족적인 취향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여성미가 표현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도상학적 해석단계

맥퀸은 과거의 복식사를 참고하여 본래의 의미와 내용을 분리시켜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곤 하였다. 특히, 빅토리아 시대는 디자인의 원천이며 그의 컬렉션에 자주 등장하는 테마이다. 빅토리아 시대풍의 패션과 메이크업은 1999년 S/S컬렉션을 비롯한 2005년 S/S, 2006년 F/W, 2007년 S/S, 2008년 S/S, 2008년 F/W 등에서 재해석되었다. 즉, 빅토리아 시대의 순종적이고 연약한 이미지를 현대의 컬렉션에서는 내추럴하고 고급스럽고 지적이며 단아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메이크업으로 재해석되었다. 이와 같이 맥퀸의 컬렉션 메이크업에 역사적인 테마를 자주 도입한 것은 영국 전통의 왕실문화에 대한 관심 표현이었다.

그 이유는 영국이 근대 민주주의가 처음 출발한 나라이지만 아직까지도 여왕과 왕실이 현존하는 나라이며, 여왕과 왕실은 국민단결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영국의 전통성을 대표하고 있다. 또한 왕족과 상류사회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패션과 메이크업은 귀족패션문화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그만의 독특한 고급스러움과 도회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우아함과 세련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맥퀸은 비비엔 웨스트우드,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와 함께 대표적인 앵글로마니아(Anglomania)[38]로서 영국의 패션문화를 세계의 패션문화로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39]. 그 예로 〈도상 15〉와 같은 빅토리아 시대풍의 메이크업은 영국의 전통문화의 상징이 현대 패션에 재해석되어 매력적인 메이크업 아이템으로 정착되었다. 더욱이 맥퀸이 앵글로마니아로서 여왕에 대한 존경과 모국에 대한 애국심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도상 15〉를 도상학적으로 해석한 결과, 전형적인 고전미가 표현된 아치형 눈썹과 온화하고 부드러운 컬러로 구성된 빅토리아 시대풍의 메이크업 유형으로, 꾸뛰르적인 의상과 새빌로우식 테일러링과 조화를 이루어 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메이크업이다. 또한 여왕에 대한 존경과 영국에 대한 애국심이 담겨진 메이크업 기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판타지식 메이크업 유형의 도상기호 해석

1) 전 도상학적 기술 단계

〈도상 23〉은 매트한 화이트컬러 피부톤과 핑크 립스틱, 이마와 양 볼에 화이트와 블랙 컬러가 매치된 새의 깃털을 콜라주하여 신비롭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메이크업이다.

2) 도상학적 분석단계

〈도상 23〉은 판타지 메이크업의 유형과 유사함을 유추하였다. 2008년 S/S 컬렉션은 고인이 된 블로우(I. Blow)[40]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테마도 블로우를 상징하는 '새(birds)이다[41].

새의 깃털과 같이 상징성이 내포된 오브제의 활용은 디자인 요소의 과장된 기법으로, 헬드먼(E. B. Feldman)에 의하면 상징성이 내포된 기호의 사용에 대해 형태적인 구조와는 무관한 방식으로 지각에 영향을 주어 복잡한 감정과 연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42].

'새'라는 테마는 이미 수석디자이너로 역임했던 지방시(Givenchy)의 1997년 F/W컬렉션의 메이크업에 표현되었는데, 새의 깃털을 콜라주한 속눈썹과 아이브로우, 레드 컬러렌즈를 착용하여 인간과 새가 혼합된 메이크업 형태로 혐오적이고 퇴폐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러나 2008년 S/S 컬렉션에 표현된 새의 이미지는 자유로운 이상향을 향해 날개짓하는 신비로운 새의 이미지로서, 자신의 정신적 멘토였던 블로우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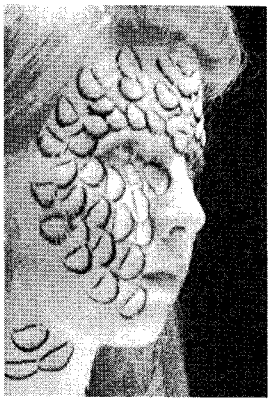
따라서 〈도상 23〉을 분석한 결과, 판타지 아트(Fantasy art)의 형태로서 현대인들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환상의 세계를 상상 속에서라도 느끼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 판타지식 메이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메이크업에 깃털이라는 이질적 소재를 콜라주함으로서 유머러스한 위트가 표현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3) 도상학적 해석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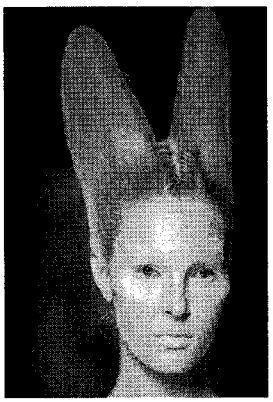
맥퀸의 자유로운 사고에 의한 창조적 발상과 희극적인 요소는 패션디자인과 무대연출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에도 표현되어 웃음을 유발시키고 있다.

미학적 측면에서 유희는 긴장의 갑작스러운 소멸과 의외성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성을 띠고 있으며 오락적인 카타르시스의 기능과 현실 도피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서[43], 환상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맥퀸 역시 환상의 세계에 대한 몰입은 고전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과 감정을 중시하는 나르시시즘(Narcissism)[44]적 태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을 낭만주의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낭만주의 시대에는 나르시스를 예술가적인 주체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으며, 나르시스적인 자기 사랑이 자기의식을 확장하고, 자기 인식으



〈도상 23〉 Mcqueen,
R-T-W, Paris, 2008 S/S



〈도상 28〉 Mcqueen, R-T-W,
Paris, 2010 S/S

로의 직접적인 통로를 제공한다고 믿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45]. 〈도상 23〉에서 볼 수 있듯이 맥퀸은 자신을 누구보다 믿고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로 이끌어준 대상과 자신에 대한 나르시스적인 심취를 표현하기 위해서, 낭만주의적인 오브제로서 '새'를 형상화하여 표현한 메이크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도상 23〉을 도상학적으로 해석한 결과, 자신의 멘토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 환상의 세계의 몰입, 자유로운 이상향을 향해 날개짓 하는 새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낭만주의적 인식과 나르시시즘이 표현된 메이크업 기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

6. 미래 변종식 메이크업 도상기호 해석

1) 전 도상학적 기술 단계

〈도상 28〉은 눈썹뼈와 광대뼈 부위에 보형물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골격을 표현하였다. 하드타입의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 베이스 메이크업만 하고 컬러메이크업은 전혀 하지 않아 미완성적인 태고의 생명체 이미지를 표현한 메이크업이다.

2) 도상학적 분석단계

〈도상 28〉은 신체변이를 통해 현실이 아닌 미래의 가상세계에 존재할 것 같은 돌연변이를 표현한 미래 변종 메이크업 유형과 유사함을 유추하였다.

2009년 S/S컬렉션부터 맥퀸의 관심사는 환경과 지구에 집중되어 다윈(C. Darwin)의 적자생존과 산업화에 의해 파괴된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21세기 진화의 어두운 단면을 표현하였다[46].

2010년 S/S 컬렉션에서도 미래의 붕괴된 생태계와 종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테마를 설정하였다. 맥퀸에 의하면, 미래의 인간은 바다에서 진화한 생물체로 변화하고, 빙하가 붕괴되면 인간은 다시 바다로 복귀할지 모른다는 암시를 표현한 것이다[47]. 그래서 실제 파충류의 가죽이 아닌 파충류 무늬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프린트한 의상을 선보였으며, 메이크업 역시 〈도상 28〉에서 볼 수 있듯이 얼굴의 골격 자체를 변형시킴으로써 진화된 미래보다는 진화가 덜 된 태고의 생명체를 표현하였다. 이는 오늘날 현대인의 인체가 과학 기술이나 유전자 조작과 복제, 성형수술 등에 의해 변형되고[48]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도상 28〉을 도상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변형되어 가는 인체를 통해 파괴되어가고 있는 지구환경을 경고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인간이 자연으로의 회귀를 통해서 귀결되며 생명체의 소중함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도상학적 해석단계

〈도상 28〉의 메이크업은 탈 인간주의 혹은 포스트

〈표 4〉 A. Mcqueen의 메이크업 도상기호 해석 요약

도상기호	전 도상학적 기술	도상학적 분석	도상학적 해석
도상 21	· 굵은 직선형 눈썹, 아쿠아 컬러 새도우, 굵은 아이라인과 아이라인 변형 · 매서운 이미지	· 이집트 메이크업 유형 · 종교박해의 의미	· 휴머니즘 ·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한 예술가의 진정성 표현 · 인간애적인 사회 갈망
도상 4	· 화이트컬러의 매트한 피부 · 블랙눈썹, 블랙 립스틱 눈과 입 모양 변형 · 무섭고 슬픈 뻐에로 이미지	· 고스 메이크업 유형 · 인간성 상실,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심 표현	· 탈중심적 세계관에 의한 비주류문화의 수용 · 아방가르드 예술정신
도상 1	· 굵은 상승형 아이브로우의 위치변환, 립리스 메이크업 · 중성적, 남성적 이미지	·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유형 · 성정체성을 초월한 다양한성 표현	·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 수용 · 페미니즘 이론
도상 15	· 골드컬러의 아이브로우, 핑크블러셔, 베이스 메이크업이 매우 얇음 · 연약하고 순종적인 이미지	· 빅토리아 시대 메이크업 유형 · 귀족적인 꾸뛰르의상과 새빌로우식 테일러링과 조화된 귀족취향	· 영국왕실문화 · 앵글로마니아로서 여왕에 대한 존경과 애국심 표현
도상 23	· 새의 깃털 오브제사용 · 신비롭고 환상적인 이미지	· 판타지 메이크업 유형 · 환상적인 세계에 대한 몰입 · 멘토인 블로우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의 표현	· 낭만주의 · 나르시시즘
도상 28	· 부조물을 이용한 입체적 골격, 컬러감 없음 · 태고적 생명체 이미지	· 미래변종 메이크업 유형 · 미래의 붕괴된 생태계와 종말	· 포스트휴머니즘

휴머니즘적 태도에서 설명될 수 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반의 유럽 대륙의 주된 철학으로, 르네상스 인본주의 시대의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초월하여 테크노 과학 지식이라는 21세기 개념에 보다 가깝게 반응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노력을 의미한다. 기존 인간중심의 패션에서 해체된 휴머니즘적 표현은 우주시대가 개막되었던 1960년대에 소개되어, 최근에도 미래의 테크놀로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이보그 즉, 제4의 성까지도 언급되고 있다.[49]

포스트 휴머니즘의 복식은 스페이스 룩(space look)이나 테크놀로지 등 미래지향적으로 시퀸(sequin) 등의 장식물이나 기계적인 이미지 등이 표현된 것이며, 이러한 복식에 영향을 받은 메이크업 역시 스페이스 메이크업(space makeup)이나 사이버 메이크업(cyber makeup)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맥퀸은 사이버 메이크업이나 스페이스 메이크업 형태를 초월한 변종 메이크업을 선보였다. 즉, 보정물을 삽입한 새로운 초인간적인 메이크업 기법으로 인간이 아닌 다른 유기체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도상 28〉을 도상학적으로 해석한 결과, 태고의 유기체 형태를 이용하여 미래에 변종될 모습을 표현한 메이크업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경고와 자연으로의 회귀를 의미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21세기 포스트 휴머니즘적 인식이 표현된 메이크업 기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맥퀸의 메이크업 기호를 도상학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메이크업이 미학적 가치를 지닌 도상기호임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상기호 차원에서의 메이크업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시도였다.

따라서 21세기 컬렉션에 표현된 맥퀸의 메이크업

기호를 파노프스키의 이론을 차용하여 실증적으로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도상학적 기술 결과, 맥퀸의 메이크업 도상기호의 형태는 이집트식 메이크업, 고딕식 메이크업, 앤드로지너스식 메이크업, 빅토리아 시대풍의 메이크업, 미래 변종식 메이크업, 판타지식 메이크업의 6가지 유형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둘째, 도상학적 분석 결과, 맥퀸의 컬렉션에서 표현되고 있는 메이크업 기호들은 맥퀸의 일생이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주변 요인들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집트식 메이크업은 자신의 혈통과 마녀재판, 그리고 마녀재판과 이집트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며, 고딕식 메이크업과 빅토리아 시대풍의 메이크업은 모국인 영국의 가장 영국적인 문화를 대비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또한 앤드로지너스식 메이크업과 미래 변종식 메이크업은 양성애자인 자신의 다양화된 성을 표현하였으며, 판타지식 메이크업은 자신의 정신적 멘토였던 블로우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셋째, 도상학적 해석 결과, 맥퀸의 컬렉션에 표현되고 있는 메이크업은 다른 패션이나 예술들과 마찬가지로 현 시대의 사회 ·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고 미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다. 맥퀸의 메이크업 디자인의 근원은 인간 본연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적 사고와 다원성을 인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태도, 자신을 사랑하는 낭만주의적 나르시시즘 그리고 새로운 미의식을 추구하는 아방가르드 예술 정신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맥퀸의 가치관은 메이크업을 통해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대한 총체성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혹은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술가의 진정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특성의 혼합에 의한 이질성과 자아도취에 의한 환상성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메이크업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메이크업은 디자이너의 예술적 의도가 포함된 언어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였고, 메이크업이 사회 문화적 가치를 지닌 기호임을 재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파노프스키의 의미해석방법을 차용한 본 연구의 해석방법이 선행되었던 메이크업의 내적의미 해석방법과 차이가 있음을 유추하였다.

한 예로 이집트식 메이크업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비롯한 타 선행연구에서는 보통 에스닉적인 의미와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었다. 그러나 맥퀸이 2007년 F/W에서 표현한 이집트식 메이크업은 이집트 메이크업의 외적 조형성의 표현방식만을 차용하였을 뿐,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기호적 의미 해석 차원에서 보면, 마녀재판의 기원은 물론 종교박해에 대한 분노를 휴머니즘 정신에 입각하여 도덕적 인간성을 갈망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작품 의도를 명확하게 분석 · 해석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해석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파악하였다. 물론 본 연구가 각 단계별로 나누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음을 인지하며, 앞으로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메이크업의 이론적 의미해석 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Welters, L., & Lilethun, A. (2007). *The Fashioned Reader*. Oxford · New York: Berg., p. xx.
2) Barthes, R. (2005). *The Language of Fashion*. trans. Andy Stafford. Oxford · New York: Berg.
3) Barthes, R. (1972). *Mythologies*. trans. Annette Lavers. New York: Hill and Wang.
4)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I*. 서울: 교문사, p. 159.
5) 김현미, 장애란 (2009). Christian Dior 패션메이크업의 기호적 해석-모리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복식, 59*(3), p. 15.
6) 김치수, 김성도, 박인철, 박일우 (2002). *현대기호학의 발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33.
7) 김경용 (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pp. 40-42.
8) Crow, D. (2003). *Visible Signs*. New York: Watson-Guptill. 박영원 역 (2005). *기호학으로 읽는 시각 디자인*. 서울: 안그라픽스, p. 58.
9) Morris, C. W. (1946). *Signs, Language and Behavior*. New York: Prentice-Hall Inc., pp. 194-195.
10) Panofsky, E. (1972). *Studies in Iconology: Humanistic Theme in the art of the Renaissance*. Oxford: Westview Press, 이한순 역 (2002). *도상해석학 연구*. 서울: 시공사, p. 3.
11) 김민자. *앞의 책*, p. 89.

12) Kaemmerrling, E. (1973). *Ikonographie und Ikonologie: Theorien Entwickung, Probleme.* 노성두, 박지형, 송혜영, 홍진경 역 (1997).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서울: 사계절, p. 4.
13) *위의 책,* p. 71.
14) 김민자. *앞의 책,* p. 90.
15) 이한순. *앞의 책,* pp. 26-42.
16) Barthes, R. (1972). *앞의 책,* p. 113.
17) 〈도상 1〉의 출처 *Collezioni danna, No.82,* Italy: ZanfiEditori, p. 39, 〈도상 2〉의 출처 *위의 책,* p. 87, 〈도상 3〉의 출처*Collezioni danna, No. 79,* Italy: ZanfiEditori, p. 42, 〈도상 4〉의 출처 *위의 책,* p. 63이며 〈도상 5〉부터 〈도상 29〉의 출처는 *Alexander McQueen Ready-to-Wear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10. 2 14,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18) Cosio, R. & Robins, C. (2000). *The Eyebrow.* 허준, 김광숙, 신석영 (2005). *눈썹의 역사.* 서울: 동서문화, p. 2.
19) 1692 마녀재판은 영국의 종교박해를 피해 뉴잉글랜드(아메리카)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자신의 권력이나 도덕적 공황상태를 이용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죄를 물게 한 것으로 종교적인 독선의 행태를 보여준다. 마녀재판의 가장 오랜 기원이 기원년전 1200년에 이집트에서 있었다.
20) Mower, S. (2007. 3. 2). *Alexander McQueen 2007 Fall Ready-to-Wear Collection Review.* 자료검색일 2010. 2. 14,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21) 가재창 (1995). *패션디자이너 199-1권.* 서울: 정은도서, p. 43.
22) 스킨헤드는 영국정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던 파키스탄계 인디언들에게 우호적인 관심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일탈된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23) 한보라 (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 특성에 관한 연구-2002~2006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7.
24) 김경순, 김미애, 박성희, 오인영 (2000). *Make-up Ⅱ.* 서울: 청구문화사, p.15.
25) 긱 시크(Geek Chic): 어울리지 않고 난해한 스타일로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말한다.
26) 김경순, 김미애, 박성희, 오인영. *앞의 책,* p. 14.
27) 보통 영국의 신분 계층을 침투성이 있는 신분체제라 함은, 영국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선천적으로 주어진 태생의 특권 외에 부나 재능을 지닌 자들도 귀족 계급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A. McQueen에도 적용되어 노동자계층의 출신이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영제국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The most excellent commander of the British Empire)'으로 지명하여 상류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28) Bolton, A., (2006). *Anglomania: Tradition and Transgression in British Fashio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p. 17.
29) Mancinelli, A. (2003). *interview with Alexander McQueen.* 자료검색일 2010. 2. 13,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2dun
30) 박은경, 정현숙 (2006). 현대패션에 표현된 Goth 스타일 연구. *복식, 55*(6), p. 169.
31) 김혜경 (2007). *패션 트렌드와 이미지.* 경기: 교문사, p. 198.
32) Mancinelli, A. (2003). *앞의 자료.*
33) 아이브로우 브릿징(eyebrow bleaching)는 눈썹을 탈색하는 것을 말한다.
34) 영화 〈Picnic at Hanging Rock〉은 1900년 성 발렌타인 데이를 맞은 여대생들의 소풍을 통해 빅토리아 시대 여성의 억눌린 성의 욕망을 표현한 영화이다.
35) Mower, S. (2004. 10. 8). *Alexander McQueen 2005 Spring Ready-to-Wear Collection Review.* 자료검색일 2010. 2. 14,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36) Cosio, R. & Robins, C. (2000). *앞의 책,* pp. 20-21.
37) Mower, S. (2008. 2. 29). *Alexander McQueen 2008 Fall Ready-to-Wear Collection Review.* 자료검색일 2010. 2. 14,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38) 앵글로마니아란 외국인의 영국숭상과 영국에 대한 심취로서, 영국문화 예술의 역사에서 형성되어 특히, 예술적인 측면에서 영국인 특유의 기질과 속성인 잉글리시니스(Englishness)를 추구한다.
39) 이지선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앵글로마니아 특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40) I. Blow는 영국 Vogue 잡지의 에디터이자 스타일 아이콘이였으며, A. McQueen의 졸업패션쇼 작품을 모두 구입하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A. McQueen이 디자이너로서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
41) Mower, S. (2007. 10. 6). *Alexander McQueen 2008 Spring Ready-to-Wear Collection Review.* 자료검색일 2010. 2. 14,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42) Feldman, E. B. *The Structure of Art in Art as Image and Idea.* Prenyice-Hall, 김춘일 역 (1990). *미술의 구조적 이해.* 서울: 열화당, p. 94.
43) 엄숙희, 김문숙 (2000). *현대복식의 패러다임-압방가르드의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 경춘사.
44) 나르시시즘은 '자기응시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만족을 찾는 자기애와 존경으로 자아탐닉, 자아도취, 자기탐구 등으로 이해된다. 황성림 (2003). *페르낭 크노프 미술세계에 나타난 나르시스적 자아탐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 이동용 (2001). *나르시스, 그리고 나르시시즘: 릴케시 분석.* 서울: 책읽는 사람들, p. 69.
46) Mower, S. (2008. 10. 3). *Alexander McQueen 2009 Spring Ready-to-Wear Collection Review.* 자료검색일 2010. 2. 14,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47) Mower, S. (2009. 10. 6). *Alexander McQueen 2010 Spring Ready-to-Wear Collection Review.* 자료검색일 2010. 2. 14,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48) 김선영 (2008). 알렉산더 맥퀸 작품의 그로테스크적 특성. *복식, 58*(8), p. 114.
49) 임수정 (2003).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패션의 여성이미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2.